

要 約

I. 勞 動 市 場

실질경제성장률
금년 11.5%,
내년 8.5% 전망

우리나라 경제는 원화의 급속한 평가절상과 노사분규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11.5%의 실질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원화의 지속적인 절상에 따른 수출 증가세의 둔화 때문에 성장률이 8.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DI 전망치).

성장의 고용흡수효과
감소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機械化와 省力化가 진전되기 때문에 성장의 고용흡수효과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게 되지만, 금년에 우리 경제는 원화절상과 임금상승이라는 대내외의 압력에 대응한 기업의 감량경영과 해외로의 생산공장 이전, 그리고 1987년의 큰 폭의 고용증가에 이은 조정국면 등의 요인이 겹쳐서 성장에 따른 고용증가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질경제성장률 1%에 따른 고용증가율을 나타내는 고용탄성치가 1987년에 전산업 0.46, 제조업 0.94이었으나 1988년 상반기에는 전산업 0.28, 제조업 0.41로 크게 감소하였다.

생산직근로자의 증가율 둔화

직종별로 근로자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생산직근로자수의 증가율 둔화가 현저한데 이는 생산직근로자의 주된 공급원인 저학력 10대 노동력 공급의 감소, 생산직 임금의 상대적인 빠른 상승 및 노조의 활성화와 생산직근로자의 높은 노조 참여율에 대한 기업의 대응 등과 같은 수요 공급측의 요인이 겹친 결과로 보인다. 생산직근로자의 전년동기비 증가율은 금년 1월 5.2%, 3월 3.0%, 5월 0.7로 급격히 둔화되어 가고 있다. 산업별로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임금상승 때문에 단위노동비용의 증가가 빠른 섬유·의복, 음식료업, 기타제조업에서 1987년에 비하여 생산직근로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고학력 실업자의 증대

1986년 이후 지속된 두 자리수의 높은 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금년에 전체적으로 완전고용수준에 가까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성별·학력별로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노동집약적 산업의 주된 노동력 공급원인 저학력 여성의 실업률은 극히 낮아 공급부족 상태인 반면, 대졸자의 실업률은 저학력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초과공급 상태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87년에 여자 중졸자의 실업률이 1.4%인 데 비하여 여자 대졸자의 실업률은 7.5에 달하고 있다.

1989년 실업률 상당히 높아질 전망

1989년에는 성장둔화와 고용조정지속 때문에 실업자수가 금년보다 많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을 8.5% 그리고 고용탄성치를 올해보다 낮은 0.2~0.15로 가정하면 실업자수가 올해보다 12~19만명 정도 늘어난 57만 내지 64만명 그리고 실업률이 3.2~3.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산업 평균임금 금년 1~7월중 전년동기비 16.5% 상승

금년 1~7월중에 전산업의 평균임금은 전년동기비 16.5%(명목)가 상승하였는데, 이는 1987년의 전년대비 증가율 10.1%보다 6.4%포인트가 높은 것이다. 이 기간중의 임금상승률을 임금내역별로 보면, 임금교섭에서 근로자들의 요구가 많았던 특별급여가 전년동기비 39% 상승한 반면, 초과근로시간의 감소에 따라 초과급여는 전년동기비 11%의 증가에 그쳤다.

생산직 임금의 급증

임금상승을 직종별로 보면, 1987년 8월부터 1988년 7월 사이에 생산직 임금이 26.7% 상승한 데 비해서 관리·사무직의 임금은 16.3% 상승한 데에 그쳐 직종간 임금격차가 빠르게 좁혀져 가고 있다. 이러한 생산직 임금의 상대적으로 빠른 상승은 노사분규 이후 생산직근로자의 교섭력 강화에 그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노동비용의 급증

1980년 이후 1987년 상반기까지는 노동생산성증가율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아서 단위노동비용이 감소하여 왔으나 1987년 하반기 이후 이 관계가 역전되어 단위노동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즉, 단위노동비용이 지난해 하반기에는 전년동기비 4.4%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비 7.3%나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광업과 제조업내의 섬유·의복, 기타 제조업 및 비금속광물부분의 단위노동비용 증가가 현저하였다.

노동시간의 단축

임금상승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 이후 노동시간이 빠르게 짧아지고 있는데, 특히 초과근로시간의 단축 속도가 빠르다. 이러한 노동시간의 단축은 소득증가에 따라 근로자들의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여 잔업이나 주말, 휴일근무를 기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II. 勞使關係

노동조합조직의 급증

지난해의 6.29 민주화 선언 이후 그동안 위축되었던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운동이 일대 고양기를 맞고 있다. 1988년 6월 30일 현재 노동조합원수가 151만, 노조조직률이 19.4%에 달하여 6.29 이전에 비하여 조합원수는 45만, 조직률은 5%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산별노련도 4개 증가하였고, 단위노조수도 일 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였다.

요 약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양상**

노동조합 조직규모의 증가와 함께 사무직, 전문연구직 및 공공부문 노조도 활발하게 조직되어 종전의 생산직 위주의 노동운동에서 벗어나고 있다. 한편 노조조직이 확대되면서 재야주도의 노동운동도 활발하여, 이들은 지역별·업종별 협의회를 만들어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기존 산별노련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산별노련을 설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임금교섭 타결의 지연

금년도 임금교섭은 계획에 비하여 타결이 매우 지연되었다. 금년 3월까지 3,713개의 기업이 임금교섭을 계획하였으나 351개 기업만이 임금교섭을 타결하였으며, 6월까지도 교섭계획 5,575개 기업의 3분의 2에 불과한 3,733개 기업만 교섭타결에 성공하였을 뿐이었다. 이러한 임금교섭 타결의 지연은 노사양측의 임금인상률에서의 큰 격차, 교섭능력 부족, 교섭관행의 미정착, 어용성 시비를 회피하기 위한 노조지도부의 강경대응, 그리고 결정권한이 없는 전문경영인의 사용자측 교섭대표로서의 참여 등에 그 원인이 있다.

**평균 타결임금인상률
13.5%**

금년 10월말까지 임금교섭이 타결된 5,959개 기업의 평균 타결임금인상률은 13.5%이었으며, 직종별로는 생산직임금 15.5%, 그리고 사무직임금 11.7%이었다. 한편 기업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타결임금인상률이 높았는데, 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불능력을 반영한 것이다.

과격 노사분규 진정국면

금년 10월까지의 총노사분규건수는 지난해보다 약 2,000여건이 감소한 1,686건이어서 건수상으로는 상당히 진정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노사분규시의 행동도 농성이나 시위와 같은 과격행동이 지난해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하였다.

노사분규의 원인

노사분규의 원인으로는 임금인상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경영권등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노사의 견해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 문제도 분규의 해결을 지연시키는 쟁점이 되었다. 또한 금년에는 공공부문의 노동조합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공공부문의 노동3권 문제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1988 노사분규의 문제점

금년도 노사분규는 다수의 쟁의발생신고 등과 같이 형식적으로는 적법쟁의의 양상을 띠었으나 실제적으로는 냉각기간 중의 태업, 위장폐업 등 양측에 의한 불법쟁의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노사분규의 지속기간은 1987년의 평균 5.3일에서 1988년에는 10일로 장기화되고 자동차를 비롯한 조립공업에서의 계열기업의 파업에 의한 생산중단 등 분규가 기업 및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컸었다.

1989년 임금교섭 전망

내년도 임금교섭에서는 노사의 임금인상률이 금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조직분규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노동조합측과 원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한 경영수지압박에 처하여 있는 기업측이 모두 유연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여 내년도 임금교섭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대우조선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재무구조나 지불능력을 무시한 무리한 임금인상이 기업을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하고, 이러한 기업 자체의 위기를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재무구조와 지불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교섭에 임한다면 지난 두 해에 걸쳐 축적된 교섭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임금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